

태국 민담 <빨라 부텅>류에 나타난 태국인의 문화적 특성

김 영 애**

1. 서론

민담은 ‘옛날 이야기’이다. 구술 형식으로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는 이야기로서 내용상으로는 교훈적이고 흥미 본위로 구성되어 있다.(김동욱 외 1988: 351-352) 그리고 민담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심리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자 기술 이전의 구전문학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다.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민중의식은 물론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세계관 및 꿈과 낭만, 웃음과 재치,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최운식 1991: 13; Sriraphorn 2000: 43).

<빨라 부텅>은 태국 중부지역의 대표적 민담으로(Thawach 2001: 22)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데렐라형 이야기’(Aarne-Thompson 510A)의 전형 또는 계모형 설화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빨라 부텅>과는 명칭은 다르나 내용이 유사한 민담은 태국은

* 한국외대 태국어과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물론 태국의 주변국에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워라빠타마 캄무(1992, 15)의 석사학위 논문에 보면 비록 이름은 다르더라도 태국의 북부지역 및 소수종족에게도 있으며 태국의 동북부와 남부, 그리고 인근의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에도 있다고 한다. 태국북부(란나타이¹⁾)의 <웃트라> 또는 <따오너이영캄> 또는 <따오너이끄라당캄>, 소수종족인 타이족의 <낭막핀캄> 또는 <낭뿌캄>, 타이야이족의 <낭씨쌍꺼>, 미얀마의 <따오야이>, 몬족의 <뿌텡>, 라오스의 <낭따오캄> 등의 민담이 전래되고 있다.²⁾(Siraphorn Na Thalang 2009: 103) 워라빠타마는 논문 속에서 <웃트라>가 치앙라이도(道)의 텡군(郡)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Worapatama 1992: 45-59)³⁾ 태국의 중부, 동북부 그리고 남부에서는 <빨라 부텡>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으나, 북부에서는 <웃트라>, <낭막핀캄>, 그리고 <따오너이영캄> 등 다양한 제목으로 되어 있다. 제목을 보면 치앙라이에서만 여주인공의 이름인 <웃트라>이고, 중부지역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는 대체로 생모가 환생한 동물의 이름인 <빨라 부텡>을 붙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안 깻쁘라툼이 편찬한 『민담』에 쓰인 끈라 싸왓이 구술한 <빨라 부텡>(Wichian 42-44)(이하 싸눈본), 씨. 플라 이너이의 『태국 민담』에 수록되어 있는 <빨라 부텡>(S. Phlainoi,

1) 태국 북부지역에서도 미얀마 및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8개 짱왓(道)을 의미한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파야오, 프래, 난, 람똥, 람퐁, 매형썸을 가리킨다.

2) 이 이야기는 태국 외에 Aschenputtel(독일), Finetta, Zezolia(이상 이탈리아), Burenushka(슬라브), Wassilissa(러시아), 셴한(Sheh-Hsien)(중국), Benizara and Kakezara(일본), 따오루영(미얀마), 이쌍꺼(타이야이), 뿌텡(몬) 등의 이름으로 구전되고 있다(Siraphorn Na Thalang 2009: 92-93 참조).

3) 이러한 계열의 이야기 중 세계 최고의 기록은 9세기경 중국의 단성식이 쓴 『유양잡조』에 실린 남중국의 민담 <셴한>(Sheh-Hsien)이라고 한다(주경철 2002: 212 ; Siraphorn Na Talang 2009: 97-100). 루스(Anna Brigitta Rooth)는 Cinderella Cycle에서 중국(근동)이 남유럽과 동유럽에 영향을 미쳤고, 다시 동유럽이 북유럽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주경철 2005: 101-105; Siraphorn Na Talang 2009: 97-100).

1961: 91-108)(이하 플라이너이본), 타나깃의 『태국 민담 50편』(Thanakid 1996: 175-181)(이하 타나깃본), 역까랏 우돔편이 편집한 『민담모음집』에 수록된 빠라쭈업키리칸의 <빨라 부텡>(Ekkarat 2005: 161-166)(이하 역까랏본), 타나폰(람두언) 째짜이디가 편집한 『태국의 민담』에 수록된 <빨라 부텡>(Thanapol 2007: 76-86) (이하 타나폰본), 그리고 타완 닷차니가 편집한 『치앙라이 민담』에 양칸 깐라얀퐁이 구술했다는 <따오너이끄라텡텡>(khunyingtemsiri. exteen.com/)(이하 양칸본) 등 6편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민담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상의 상이점과 공통성을 찾아본다. 태국의 남부와 동북부의 <빨라 부텡>은 내용상 모두 중부지역의 <빨라 부텡>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Warapatama 1992: 177)⁴⁾ 중부지역의 것으로 보았다.

민담이 구전되고 화자와 청자 간의 호흡에 따라 보존과 전달 상태가 가변적이라는 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빨라 부텡>류의 민담을 텍스트로 하며, 그 텍스트상의 차이점을 기초로 민담 <빨라 부텡>에 나타난 태국인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빨라 부텡>류의 표면적 서사 진행과 변형 양상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6편의 민담의 제목을 살펴보면 5편은 <빨라 부텡>이고 나머지 하나는 <따오너이끄라텡텡>⁵⁾이다. <빨라 부텡>

4) 동부지역본은 으어이와 아이의 얼굴이 비슷하며, 으어이는 결혼해서 딸을 두었다. 이 딸이 아이를 보고 엄마가 아니라고 아버지인 왕에게 말한다. 참고로 '으어이'라는 단어의 뜻은 '큰딸'로, 예전에는 큰딸을 흔히 이렇게 불렀다. '아이'와 '이'의 뜻은 각각 '큰아들'과 '둘째 딸'이나 '둘째 아들'이다. 생모가 각기 다르므로, '으어이' 및 '아이와 '이'로 불린 것 같다.

이나 <따오너이끄라덩텅>의 공통점은 제목이 모두 인간 이름이 아닌 동물 이름이라는 점과 그 동물이 범상치 않다. 같은 종의 여러 동물과 달리 황금색을 가진 동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쁠라 부’, 즉 ‘부(Goby)’라는 이름의 물고기는 태국의 민물이나 바닷물에 사는 작은 물고기로 흔한 종류이나 이 민담에서는 ‘부텅’ 즉 ‘황금색 물고기 부’라 함으로써 고귀함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는 ‘따오’ 즉 ‘(작은) 거북이’인데, 그 거북이 역시 ‘텅’을 붙임으로써 ‘등껍질이 황금색인 거북이’로 만들어 그 고귀함을 나타내고 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장	본처	첩	본처딸	첩딸	
싸눈본	아버지	어머니	계모	으어이	아이, 이	구술자, 중부
타나깃본	타라까쌌티	카닛타	카닛티	으어이	아이, 이	편집자, 중부
타나폰본	쌌티	까닛타	까닛티	으어이	아이, 이	편집자, 중부
플라이너이본	쌌티	카닛타	카닛티	으어이	아이, 이	편집자, 중부
엑까랏본	쌌티	카닛타	카닛티	으어이	아이, 이	편집자, 중부
양칸본	쌌티	없음	깔라이	웃트라	웃타	구술자, 치앙라이

위의 도표를 보면 가장(아버지)의 이름은 대부분이 ‘쌌티’이고 본처는 ‘카닛타’, 첩은 ‘카닛티’, 본처딸은 ‘으어이’, 첩딸은 ‘아이’와 ‘이’이다. 싸눈본은 여주인공 부모의 이름을 그저 아버지, 어머니, 계모라고 단순화하였다. 양칸본은 가장의 이름만 같고 첩이나 여주인공, 이복동생의 이름이 다르다.

위 6개 본에 나타난 가장의 직업은 모두 강에서 그물을 쳐 민물고기를 잡아 장에 내다 파는 어부다. 가장은 6개 본 모두 아내가 둘이다. 본처에게서는 딸 하나를, 첩에게서 딸 둘을 두고 있다. 양칸본은

5) 이 본은 <웃트라> 또는 <따오너이영캅>이라고도 불린다(Worapatama, 1992: 32 참조).

본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첩이 딸을 하나(웃타) 두고 있다.

6개 본의 주요 내용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부인 가장 셋티는 아내가 둘이다. 본처는 딸 하나, 첩은 딸 둘(양간본은 하나)을 두었다. 본처는 덕이 있고 착한 여성이라는 데 공통적이다. 첩에 대한 설명은 <빨라 부텅>류에는 없으나 양간본에는 첩이 본디 ‘피끄라쓰’ 즉 날 것을 먹는 귀신 또는 정령의 화신이라고 되어 있다. 어부는 본처와 딸에게 정이 없고(타나폰본), 이복형제는 얼굴이 닮았다.
2. 셋티는 본처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자, 그 화풀이를 본처에게 한 결과 아내를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다. 그러나 양간본에서는 본처를 늘 시기하는 첩이 속임수를 써서 남편의 화를 돌렸고, 결국에는 본처를 물에 빠뜨려 죽이게 만든다.
3. 본처는 죽어서 빨라 부텅(황금색 부) 또는 등껍질이 황금색인 거북이(황금 거북이)으로 환생한다.
4. 첩이 빨라 부텅(또는 황금 거북이)을 잡아먹는다. 양간본에는 거북이를 잡는 과정과 끓는 물에 넣는 대목이 매우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진한 모성애를 표출한다.
5. 땅에 묻은 빨라 부텅 비늘에서 가지 2 그루가 났다. 양간본에는 없다.
6. 첩은 가지나무를 뿌리째 뽑아 가지는 먹고 줄기와 뿌리는 강물에 버렸다. 양간본에는 웃트라가 거북이 등껍질을 묻는다.
7. 땅에 묻은 가지씨(거북이 등껍질)에서 금색 은색 보리수 2 그루가 났다.
8. 그 나라 왕이 보리수를 궁으로 옮겨 심고 싶어 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여주인공은 왕비가 된다.

9. 계모는 거짓말로 피여 여주인공을 끓는 냄비에 빠뜨려 죽였다. 양칸본은 여주인공을 묶어 호수에 빠뜨린다.
10. 계모는 자기 아이를 왕비로 꾸며 왕궁으로 보낸다.
11. 여주인공은 죽어서 녹객따오(앵무새)로 환생하여 왕을 만났으나 가짜 왕비로 행세하는 이복동생에 의해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으나 탈출하여 도사의 도움을 받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양칸본에서는 물에 빠진 여주인공이 신의 도움으로 숨을 지탱한다.
12. 여주인공은 꽃과 잎, 그리고 열매로 화환을 엮은 후 톱에게 들려 왕에게 보낸다. 왕은 화환에 씌어있는 내용을 읽고 여주인공을 찾는다. 양칸본에서는 숨이 붙어 있는 여주인공을 살려낸다.
13. 왕은 여주인공을 왕비로 복위시킨다.
14. 가짜 왕비임이 들통 난 이복동생에게 왕은 사형을 내리나 왕비의 간청으로 사면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복동생은 감옥에서 자살한다. 양칸본에서는 사형에 처해진다.
15. 왕은 이복동생의 살점으로 젖을 담가 부모에게 보내 먹게 한다.
16. 왕이 하사한 젖갈이 딸의 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부모가 도망을 쳤으나 전생의 업보에 대한 설법을 들은 여주인공의 간청으로 용서받는다.
17. 왕과 왕비, 그리고 부모와 다른 여동생은 모두 행복하게 지낸다. 그러나 양칸본은 사면을 받은 계모가 왕궁에 들어가기 직전 땅이 갈라지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아버지만 살아남아 행복하게 산다.

위에 언급한 6개 본의 서사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처럼 중부의 5개 본에는 왕비가 된 여주인공이 이복동생에 의해 끓는 냄비에 빠져 죽임을 당한다. 죽은 여주인공은 새(녹꺄따오, ‘앵무새’로 번역)가 되어 왕과 해후하나 이복동생에 의해 털이 뽑혀 국거리가 될 위기에 피신하여 생명을 건지고 선인을 만나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이외에도 여주인공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꽃과 나뭇잎, 그리고 열매를 엮어 화환, 즉 푸엥말라이를 만들어 왕에게 보냄으로써 왕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자신의 지위를 회복한다. 양칸본에는 도사와 푸엥말라이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여주인공이 이복동생에 의해 묶인 채 호수에 빠뜨려짐으로써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위기에 처하나 신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있다가 왕에 의해 구출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여주인공의 생모가 죽었다가 환생한 동물이 각각 거북이와 물고기(부)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물고기와 거북이 모두 물과 관계된 동물로 태국에서는 혼한 동물이다. 이 사실은 중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나 모두 강을 지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중부지역에는 여러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 민물고기인 부로, 습지가 많은 산간지역을 공간으로 하고 있는 양칸본은 산거북이로 설정되었다. 실제로 태국 북부 산간지역의 습지에는 꼬리가 한 뼘 정도 되는 ‘뿌루’라는 산(山)거북이 있다.

Ⅲ. 민담 <빨라 부텅>류에 나타난 태국인의 정신문화

1. 전통적인 힌두문화 : 초월적 존재에 의존한 인간구원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는 인도문화권이다. 인도문화, 즉 타이족이 남하하여 왕국을 건설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힌두문화가 전파되

어 주민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테와라다 문명과 몬 문명이 그렇고 크메르 문명과 씨위차이 문명이 그렇다. 왕의 이름은 모두 ‘프롬 마탓’이지만 그 앞에 붙는 호칭을 살펴보면 싸눈본은 ‘타우’이지만, 나머지 4본 - 타나깃본, 타나폰본, 플라이너이본, 그리고 엑까랏본에서는 ‘프라짜오’ 그리고 양간본에서는 ‘프라라차’라고 되어 있다. ‘프라짜오’나 ‘프라라차’는 태국이 크메르 문명을 도입 이후에 왕을 칭하는 호칭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힌두문화가 민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태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민담 <빨라 부엉>이 어떤 경로로 태국인에게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나 인도문화(힌두문화)가 적지 않게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불교전래와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내용에 고전문학 중에 자주 등장하는 소설적인 장치이자 힌두의식인 ‘탐관’과 ‘탐싸네’가 나타나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태국인들은 인간은 물론 우주의 삼라만상의 신체 속에는 ‘관’이 있다고 믿는다. ‘관’은 테라와다 불교문화보다는 힌두문화에 나타나는 개념이다.(Ruth-Inge 1982: 서문 xii), ‘관’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영(靈)’, ‘혼(魂)’, ‘영혼(靈魂)’ 또는 ‘Soul’로 번역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호신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관이 인간의 몸속에 있으면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고, 밖으로 나가면 인간은 죽는다고 믿는다(Anuman 1988: 229).⁶⁾

6) 태국인의 일생에서 ‘탐관’의식은 자주 한다. 통과의례에서는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린애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며,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은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심한 병을 앓고 난 후 건강을 기원하며 집안의 형편에 따라 집안어른들은 자손들을 위한 탐관 의식을 한다. 입학식 등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에는 성대하게 한다. 크고 작은 여러 단의 꽃장식인 바이씨를 만들어 중앙에 놓고 브라만을 초빙하여 의식을 하기도 하고, 단출하게 할머니가 물 한 그릇과 향초만 밝히고 하기도 한다. 이외에 먼 길을 떠나거나 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안녕과 안전을 기원하거나 무탈하게 돌아온 데 대한 감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 장치는 태국의 고전작품에서는 자주 등장

플라이너이본에서 프롬마닷 왕은 왕비의 지위에 복위하는 으어이에게 다시는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으어이의 영혼을 청해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기를 바라는 탐관 의식을 거행한다. 법사(法絲)를 손목에 묶어주면서 “혼아, 아무개의 혼아! 이리 와서 몸속에 들어가 있거라”라며 관(혼)을 불렀을 것이다.

이 짧은 민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찌어찌 한다는 탐관 의식의 순서나 자세한 내용은 없으나 꽃으로 만든 장식품인 바이씨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왕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또 7일 밤 8일 낮 동안 성대한 잔치를 했다는 서사를 보면 절대로 소홀하지 않은 의식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9단의 거대하고 화려한 ‘바이씨’를 만들어 중앙에 세워 놓고 향초를 밝히고 제물을 차려 놓은 자리에서 힌두교의 제사장, 즉 브라만이 주문을 외웠을 것이다. 따라서 으어이의 환궁도 싸눈본과 액까랏본에서와 같이 왕은 왕비의 권위와 지위에 맞게 병사와 신하를 대동하고 와서 행렬을 지어 함께 환궁했을 것이다.

문학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민담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은 영원하고 필수적인 주제이다. 그러한 사랑을 둘러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랑을 독점하기 위한 노력은 등장인물에 의해 끊임없이 전개된다. 태국문학작품에서는 남편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여성들은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탐싸네” 의식이다.⁷⁾ 이 의식은 마법과 미약(媚藥)이 사용된다.

한다. 예를 들어 <쿤창과 쿤팬의 이야기>에서 열다섯 살짜리 어린 손자 플라이응암이 보름이나 걸어서 깐짜나부리로 할머니 텅쁘라씨를 찾아 갔을 때 할머니는 놀랍기도 하고 무사히 온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대견한 마음에서 그 날로 바이씨를 만들어서 탐관 의식을 한다(김영애 2010: 98-99 참조).

7) 고전문학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치로, <쿤창과 쿤팬의 이야기>에도 이 의식이 나타난다. 플라이응암의 아내, 씨이파는 남편 플라이응암의 사랑을 얻고자 마법사 테라콧을 찾아가 “탐싸네” 의식을 부탁한다(김영애 2010: 147-149 참조). 이

웃트라본과 싸눈본을 제외한 다른 4개의 본에 나타나 있는 “탐싸네” 의식은 태국인 사이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되지 듯 은밀하게 행해진다. 주로 마법사나 주술사를 찾아가 돈으로 매수한 후 은밀히 부탁한다. <빨라 부텅>에서는 여주인공을 끓는 물에 빠뜨려 죽인 후 그녀의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후 가짜 왕비행세를 하고, 또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또는 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왕에게 주문을 걸거나 미약을 사용하거나 탐싸네 의식을 한다. 그 결과 왕은 아이를 왕비로 알고 지낸다.

고전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치가 나타나는데, 바로 푸엥말라이와 도사이다. 도사는 힌두세계에도 불교세계에도 등장할 수 있는 존재이다. 도사는 반인간반신적인 존재로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도사는 마지막 고난을 해결하게 조력함으로써 여주인공이 고난과 불행을 감내한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태국 문학에 등장하는 이러한 도사는 대체로 한시적 생명과 역할을 가지며 여주인공을 도와 행복을 다시 찾게 하는 존재로, 5살짜리 어린애 “롭”을 만든다. 태국어로 ‘지우다’라는 뜻을 갖는 롱은 본인의 임무를 끝내면 스스로 사라진다. 도사는 종이에 어린 사내애의 그림을 그린 후 신기운을 불어넣어 인간으로 만드는 게 보통이다.

<빨라 부텅>류에서는 <웃트라본>을 제외한 다른 본에 모두 도사가 나타나고 있다. 죽음이라는 위기를 자력으로 모면한 으어이에게 제 모습을 찾아주고, 롱을 통해 자신의 신분에 되찾게 해 준다. 여주인공 으어이가 왕을 만나고 왕비로 복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롱이 맡는다. 모자 관계로 으어이와 2년간 지난 후 롱은 아버지에 대하여 묻게 되고 그 대답으로 으어이는 자신의 그간 사정을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롱이 들에서 따거나 꺾어온 열매와 꽃, 그리고 나뭇잎

의식으로 씨이파는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는데 성공한다.

을 한데 엮어 자신의 이야기-끓는 냄비에 빠져 죽은 사연, 죽어서 앵무새가 된 사연과 죽임을 당한 사연, 간신히 도망쳐서 도사에게 의지하고 사는 사연 등-를 새겨 넣은 푸엥말라이를 립에게 들려 보냄으로써 왕과 상봉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를 만든다. 꽃과 잎으로 둥글게 엮어 만든 화환, 즉 “푸엥말라이”라는 장치는 과거 여성들이 글을 읽지 못했던 시절에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전하던 방법으로, 태국 고전문학에서 종종 사용된다. 립과 푸엥말라이는 <라마끼안>, <낭쌌쌩> 등의 힌두문학이나 차독(Jadaka) 또는 불교 문학작품에 자주 나타난다.

도사의 역할은 민담에서 사회의 사악하고 삿된 방법이나 정신을 해결하거나 없애는 역할을 갖는다. 푸엥말라이를 보고 왕비의 존재와 그녀의 억울함을 깨닫게 된 왕은 몰래 으어이를 찾아 도사가 수행하는 암자로 온다. 이때 도사는 왕에게 씌워진 주술 또는 싸네(魔力)을 벗겨줌으로써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일을 해결하게 도와준다. 이처럼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도사를 등장시켜 해결케 함으로써 민담에 신비성과 재미를 더 하고 그러한 존재와 자신들 사이의 동질성과 친밀감을 인식했다.

2. 민중 신앙 : 선업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기실현의 대리성취

민담 <빨라 부텅>은 서사진행에서 공간적인 무대가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 가정이다. 서사적 분규의 핵심적 등장인물로는 다른 혈연을 가진 계모와 계모의 딸이 설정되고, 갈등 당사자들은 가족이다. 비록 계모와 이복동생은 부차적 인물이나 서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전개시키는 주동적 역할을 하며, 서사적 종결은 그들의 악행이 밝혀져 처형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월을 두고 전승되어 온 이러한 공간과 서사 진행에서

서민들의 자연 숭배, 조상, 귀신이나 신성한 존재, 미신, 호신불에 대한 믿음 등을 비롯하여 불교의 업보와 윤회 등의 믿음 등이 민담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사람(서민)들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을 융합함으로써, 또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 조력자를 주변의 가깝거나 친숙한 존재로 설정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서사를 진행시켰는데, 그 조력자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친숙한 동물이나 식물을 설정했고, 절대 위기의 경우에는 부모 및 조상의 환생 및 도사를 통하여 도움과 구원을 받았다.

<빨라 부텡>류에도 조력자들이 등장한다. 동물로는 으어이에게는 쥐와 오리, 윗트라에게는 검둥개가 나타난다. 가지나무와 보리수가, 생모의 환생, 여주인공의 사후 환생, 그리고 불교적 요소인 불보살이나 승려 등은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존재들이다.

우선 조력자로 등장하는 동식물은 계모와 이복동생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생모의 환생을 돕는다. 으어이의 경우, 으어이 생모가 죽어서 환생한 민물고기 부텡과 가지를, 윗트라에게는 윗트라 생모 환생인 거북이를 없애고 그 흔적을 없앴으로써 계모와 이복동생은 주인공을 정신적으로 학대한다.

으어이의 생모는 죽어서도 딸의 곁에 맴돌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돕는다. 태국인들은 조상은 후손에 대한 보호본능을 지니고 있어 죽은 후에도 저승으로 가지 않고 집이나 자녀 곁에 함께 지낸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태국인의 민담에 잘 나타나 있다(김영애 1999: 97-101). 으어이나 윗트라 생모가 죽은 후에 어린 딸이 걱정되어 다른 형태의 몸으로 환생을 거듭하며 으어이와 윗트라 주변을 맴도는 것도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다.

재생 또는 환생신앙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민족에게서 현저히 나타난다. 죽음은 생명의 절대적 종말이 아니고 재생으로서의 과도적 단계로, 일시

적 죽음이다. 죽음의 뒷전에는 영혼이 존재하고 그 죽음은 땅속에 숨겨져 있는 씨앗과 같이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생으로 귀환한다(박규홍 1981: 73). 으어이 생모가 죽은 후 물고기, 가지나무와 보리수 등 3번에 걸친 환생과 으어이의 앵무새 환생 등은 모두 한이 풀리지 않았음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의로 억울하게 죽은 생모는 죽어서도 딸의 삶이 걱정이 되어 극락에 가지 못하고 딸 곁을 맴돈다. 생모의 한(恨)은 물고기, 가지나무, 그리고 보리수로 환생하며 주인공에게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인 위안자의 역할을 한다. 물고기로 환생했을 때는 저녁마다 으어이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들판에서 가지나무와 보리수로 환생했을 때는 계모의 구박으로 거칠어진 으어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 보리수의 경우는 한 단계 발전하여 좀 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생모의 환생은 점점 신성을 가미하며 발전하여 마침내 어린 딸이 배우자와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딸이 신분상승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웃트라 의 엄마도 역시 사후 황금거북이가 되어 어려움을 들어주는 정신적 위안을 주었으며, 헝크러진 머리에 빗질을 해서 예쁘게 꾸며 줌으로써 딸의 외모에 신경을 썼다. 황금거북이가 사후 신기한 보리수로 환생했을 때는 으어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비가 되게 함으로써 신분상승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불교국가에서 보리수는 신성한 나무로 인식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리수는 불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Suvanna 2000: 182). 서민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야기속의 보리수를 여니 보리수와 달리 아름답고 신기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등 신이한 모습으로 만들어 더 신성함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으어이나 웃트라 외에는 어떤 사람도 뽑을 수 없는 신성을 부여하여 민담에 재미를 더 했다. 왕이 그 보리수의 신성에 감탄해 왕궁으로 옮겨 심을 욕심을 냈고,

인간 세상의 지존인 왕도 뽑을 수 없는 보리수를 천한 신분의 어린 여주인공이 쉽게 뽑게 함으로써 여주인공의 선함과 신성함을 인식시켰다. 이 순간은 바로 그 여주인공이 왕비의 자격을 갖춘 존재임을 온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보리수 외에도 양간분을 제외한 이 민담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으어이가 사형선고를 받은 이복동생의 목숨을 구명할 때 왕에게 업보를 이유로 든 사실과 불보살(승려)의 등장과 가르침은 태국인의 불교적 종교관, 즉 업보에 대한 불교적 윤회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불교의 본생담과도 궤를 같이 한다.

양간분과 역까랏분을 제외한 <빨라 부텅>류에는 불보살 및 승려가 등장하여 으어이의 전생과 금생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용서와 선이라는 불법을 가르친다. 전생에 으어이가 독수리였고 아이가 닭이었는데, 독수리가 닭을 잡았으나 닭이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현생에서 아이가 으어이에게 그 앙갚음을 한 것이라 했다. 자신의 전생과 업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으어이가 깨닫고 왕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아이의 구명을 탄원하였고, 왕 또한 이를 허락하여 악업이라는 연기를 끊었으나 아이는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한다. 자신의 악행을 뉘우침이 없이 죽은 아이는 으어이와 대조되는 행위로 아직 윤회라는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가르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을 때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보편적 심리를 비롯하여 옛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생불멸의 꿈과 좀 더 자율적이고 완벽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기실현의 열망을 이 민담은 담고 있다. 으어이가 끓는 물에 빠져 죽었다가 앵무새로 환생한 사실은 주인공이 물과 불의 통과의를 치르고 나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음(김환희 2004: 306-307)을 구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주인

공은 아직도 남은 업보가 있어 왕비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곧 이복동생의 도전을 받아 죽게 되나 자력으로 도마 위에서 피해 이복동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면하고, 자력으로 푸엥말라이를 만들어 룽에게 들려 보냄으로써 자신의 건재함을 왕에게 알리고,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민담 <빨라 부텅>류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이 믿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평범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 민담에는 힘없고 가여운 여주인공을 왕비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복을 누리는 종말을 설정함으로써 민중의 염원, 즉 민족의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미래관을 반영한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태국인의 믿음 “탐 디 다이 디 탐추어 다이 추어”를 일깨워준다. 왕은 자살한 아이의 살을 저미어 또는 잘게 잘라서 소금에 절여 젓갈을 담근 후 그녀의 부모에게 보낸다. 생부와 계모는 왕의 선물로 생각하고 먹는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계모와 여동생은 결국 혈육의 살을 먹는 벌을 받는 것이다. 불교라는 믿음이 구체화된 민담에서는 뉘우치고 용서 받아 더불어 행복하나 양간본의 계모는 궁으로 가는 대문 바로 앞에서 땅이 갈라지며 계모만 그 속에 빨려 들어가 죽고 만다. 이러한 움직임 수 없는 자연 또는 신의 징치는 바로 악행과 선행에 대한 민중의 마음이다.

IV. 민담 <빨라 부텅>류에 나타난 태국인의 일상 문화

1. 가족 구성원간의 일상적 관계에 나타난 태국인의 일상 문화

민담 <빨라 부텅>류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두 핵가족으로, 아버지

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는 집안일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유일한 존재로서, 가장이다. 우선 남편과 아내간의 관계를 보면, 모든 본에서 가장은 아내가 돌리고, 두 아내에게서 각기 딸을 하나 또는 둘을 두고 있다. 남편과 두 아내 모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첩의 농간으로 본처가 사망하는 타나폰본과 양칸본을 제외한 다른 본에서 본처는 남편과 같이 강에 나가 고기를 잡고 첩은 집안일을 한다. 고기잡이를 하던 남편은 고기가 잡히지 않자 그 화풀이를 아내에게 하고 급기야는 아내를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다. 이는 서민의 아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아내와 남편간의 관계를 시사한다.

전통적인 태국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 내 대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성은 집안 살림을 하는 외에 남편의 언행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식주면에서 시중을 잘 들어 남편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 즉 아내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주가 바로 남편이며, 본처는 첩을 투기해서도 안 된다고 교육된다(Suphattra 1993: 68).

<빨라 부텅>류에서 본처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못 받는다 해도 모두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웃의 존경을 받는 착한 여성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첩은 악령의 화신이라는 양칸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는 여성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첩은 본처의 사망에도 일조했고(타나폰본과 양칸본), 본처의 사망 이후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또는 남편과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세인의 관심을 으어이를 때리는 것으로 은폐하고 변명하였다. 본처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패물 등을 싸들고 도망을 갔다며 여성의 “일부종사”라는 덕목을(Bunyong 1989: 132) 훼손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부정한 행위를 딸에게 전가하여 구박하고 구타해도 되는 구실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프라이너이본, 타나깃본, 엑까랏본, 타나폰본에 나타나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아내는 본처건 첩이건 모두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태국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임을, 남편의 눈 밖에 난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남편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아내를 여럿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아내들 중에서 본처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Suphattra 1993: 68, Bunyong 1989: 143). 그러므로 첩은 직간접적으로 본처를 없애는데 동조한 것으로 본다.

아내는, 특히 본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조를 지켜야 한다. 딸 역시 아버지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로 집안 내 남성, 특히 아버지와 오빠에게 절대 순종한다. 여성은 어려서부터 삼종지도를 교육 받았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 사후나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Bunyong 1989: 80). 이 민담에는 가정 내에서 이러한 아내와 딸의 전통적 역할 및 지위가 반영되어 있어, 아내와 딸은 모두 가장에게 순종한다. 특히 본처는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때리는 남편에게 대항도 하지 않고 익사함으로써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첩과 대비시킴으로써 청자나 독자에게 전통적 여성상 또는 여성의 덕목을 가르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보면, 특히 으어이(웃트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비롯하여 계모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다. 이복형제간의 관계도 편치 않음을 나타낸다. 아내 사이의 갈등 또는 남편의 한 아내에 대한 편애 결과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미침을 시사한다. 첩, 다시 말해 여주인공의 계모 또한 여주인공을 구박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계모는 으어이가 어렸을 때는 오리 치는 일을

시키더니 좀 나이가 들자 남자에들이나 하는 소나 물소를 키우는 일을 시킨다. 아침마다 물소를 몰고 멀리 들판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야 돌아오게 하는 등 가정에서 소외시킨다.

주인공의 가정이 결손가정이라는 사실은 가정담의 정석대로 계모와의 갈등 원인이 된다. 본처의 사망은 곧 본처가 낳은 딸에 대한 구박을 예견하게 한다. 비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시작된 주인공의 삶이 외롭고 고난의 연속임은 자명하다. 주인공에 대한 계획적이고 구체적이며 일방적인 계모의 학대는 주인공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어서 계모 딸과의 갈등도 시사된다. 이복동생은 여주인공의 학대에 가담한다. 그들은 여주인공의 행동을 감시하며, 그녀의 작은 위안, 즉 생모의 환생과 이야기하는 행복을 빼앗는데 앞장섬으로써 계모의 학대에 동조한다.

계모의 여주인공에 대한 구박은 여주인공의 행복을 가로채는 것으로 이어진다. 의붓딸의 신분상승과 행복한 생활을 시기한 계모와 그 딸들은 마법사를 매수하여 여주인공을 죽이고 행복을 가로챌 방법을 모색한다. 여주인공이 왕비가 되자 왕비 자리를 탐낸 계모는 아버지가 편찮으니 다녀가라는 거짓 전갈을 보내고, 그 전갈을 받은 여주인공에게 먼 길을 오느라 더울 테니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목욕부터 하라고 권함으로써 왕비의 옷을 벗게 하고 마침내는 그녀를 끓는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죽이려는 의도에서 온몸을 결박한 채 물에 빠뜨린다. 그리고 자기 친딸에게 의붓딸이 입고 온 의복을 입히고 장신구를 단 후 궁에 들여보냄으로써 딸의 행복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계모의 행위는 으어이(웃트라)의 엄마가 죽어서도 환생을 거듭하며 딸의 안위와 행복을 염려하고 돕는 것과 맥을 같이 하나 계모의 행위는 선행과 업보를 중시하는 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어긋난다. 이러한 계모의 행위는 남편의 첩살림을 자의건 타의건 받아들이는 순종적이고 이웃이 인정하는 선한 여성으로 묘사된

본처와 대비함으로써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이, 어느 면에서는 여성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고 하겠다.

이 민담에는 이복형제간의 갈등도 나타난다. 여주인공의 이복 자매인 아이와 이(양간본에서는 윗타)는 으어이의 행복을 가로채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이다. 아이의 이러한 행위가 성공하는 듯했지만, 실은 여주인공이 자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죽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왕비에 오른 과정과 달리 끓는 물에 빠져 죽은 여주인공은 자력으로 아이를 물리치고 다시 왕비의 자리에 복귀하는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주인공과 생부의 관계 또한 곱지 않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예뻐하지 않고, 엄마를 찾는 딸에게 “용궁에 갔다”, “삼일 후면 떠오른다”라고 대답하는 아버지이자, 또 계속 엄마를 찾는 딸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비정한 아버지이다. 여주인공과 생부와의 관계는 초반부에 나오다가 잠잠하다. 그리고 후반부에 계모와 이복동생의 죄업이 탄로 나자 첩의 채근을 받으며 도망가는 힘없는 아버지이나, 마지막에는 여주인공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누린다. 하늘의 응징을 받은 사람은 계모와 아이, 다시 말해 직접적인 행위자일 뿐이다. 이러한 결말은 가장으로서의 가정 내 지위를 인정하는 남성위주의 사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 혼인과 여성의 신분 변화

이미 위에서 태국사회에서 또는 태국인의 가정에서 혼인한 여성의 지위와 덕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였다. 혼인은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 중대한 통과례의 하나이다. 태국사회에서 여성의 신분은 출생에 의해 정해진다. 왕족의 딸은 왕족으로, 노예의 딸은 노예로 평생

을 산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는데, 그 하나는 혼인이라는 방법이다. 이 경우 여성의 외모, 다시 말해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절대적이다.

전통적으로 태국인의 결혼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 매파를 통한 청혼과 여성의 몸값 흥정, 약혼, 결혼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딸의 배우자를 정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게 보통이다. 평민들은 보통 “클룸통촌”이라고 해서 여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 특히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혼인한다. 가장은 딸의 행복을 마음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딸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딸의 배우자를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향은 미모가 뛰어난 딸을 둔 부모일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Saisamorn 1986: 12). 그 이유는 딸의 결혼이 가문의 부나 명예, 또는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Bunyong 1989: 157). 이를 뒤집어 보면 여성은 결혼에 의해, 즉 남편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민담이나 설화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착한 여주인공이 보통 훌륭한 가문의 남성과 혼인하는 행복한 결말을 내는 것은 여주인공의 착함이 보답 받는 상징적인 결말인 것이다. 좋은 가문의 남편을 맞는 것은 바로 그 여주인공이 행복과 새로운 미래의 삶을 보장받는 장치이다.

<빨라 부텅>류의 민담에서도 여주인공은 결론적으로 모두 왕의 아내, 왕비가 된다. 천한 어부 딸인 여주인공이 왕과 결혼함으로써 왕비로 신분이 상승한다. 고대태국사회에서 왕은 절대지존이고, 신권을 대행하는 인물이다(Suphattra 1993: 6-7). 여주인공은 계모의 학대 속에서 생모의 도움을 받아 보리수를 매개로 하여 왕을 만나게 된다. 보리수를 매개로 함은 왕과 그녀와의 관계가 소위 “불폐싼니왓”, 다시 말해 “전생이 맺어준 부부관계”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

다. 왕은 그녀의 착한 마음과 미모, 그리고 신이한 능력 또는 신성이 왕비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여주인공을 왕비로 맞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여성의 덕목 중 아름다운 외모와 착한 심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Saisamorn 1986: 12). 윗트라와 생모가 딸의 헝크러진 머리를 빗겨주는 것도 딸의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다. 게다가 보통 인간으로는, 심지어는 왕까지도 따를 수 없는 신성을 소유한 여주인공이 아닌가? 여주인공의 행복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는 문제를 두고 볼 때 가장 지체가 높은 남성, 즉 왕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한다.

남편의 지위가 절대지존이므로 그 아내인 왕비 또한 여성 중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신분임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전생의 업보로 아직도 악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계모는 자신의 딸인 아이를 위해 의붓딸의 지위를 탐내어 살해하고 만다. 살해 직전 계모는 의붓딸에게 목욕을 권한다.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먼 길을 오느라고 힘도 들고 땀도 흘리고 해서 더러우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만나라는 것이었으나 속셈은 그녀가 입고 온 왕비 의상과 장신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의붓딸이 입고 온 의상과 장신구는 바로 왕비라는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신분사회에서 의상과 장신구는 개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aisamorn 1986: 6).

구전에 의해 전승되는 설화나 민담은 무의식과 몰기교 속에서 민중의 생활감정과 함께 성장하므로 문화나 교양에 변모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민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 민족의 체취와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맛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장덕순 2001: 4). 그러므로 민담에 나타나는 사건은 일회적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반복해서 발생 가능한 전형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담은 민중의 공동작으로 그 전

승도 공동체를 통해 계승되어 왔다. 민담의 주인공은 힘없는 서민으로 신기한 사건, 초인적 경험이나 시험을 통과한 후 기대하지 않았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V. 결 론

범세계적인 광포민담의 하나인 민담 <빨라 부텅>류는 비록 여주인공의 이름이 다소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태국 전역에도 분포되어 있는 ‘신데렐라형 이야기’ 또는 계모형민담의 전형이다.

민담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심리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전문학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민담은 한 민족의 정신문화를 비롯해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를 담고 있다.

민담 <빨라 부텅>류는 서사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주인공 생모의 죽음, 계모와 여동생의 등장, 계모의 주인공 박해, 협조자의 도움으로 위기 모면, 주인공의 결혼과 행복, 계모와 이복 여동생의 모함으로 주인공 사망, 이복여동생의 주인공 행세, 사망한 주인공의 환생, 남편과 재회, 계모와 이복 여동생에 대한 징벌이라는 서사구조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이 공통적인 서사구조 속에서 태국사회가 왕을 정점으로 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사회이며, 초자연적인 신앙요소가 불교적인 믿음과 함께 녹아 있는 사회임이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주인공의 운명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려는 당대 민중의 사상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초자연적인 인물의 등장 등 환상적 수법은 신비감뿐 아니라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벌을 준다는 당대

민중들의 세계관과 행복에 대한 지향성이 반영되어 있다. 민담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출구로서(Siraphorn 1996: 17-18, 21), 고통과 억압 받는 민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력과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력을 키워주는 기능도 있다고 본다.

주제어: 빨라 부텅, 옷트라, 낭옷트라, 태국민담, 태국계모민담,

〈참고문헌〉

- 김동욱 외. 1988. 『한국민속학』. 새문사.
- 김영애. 2010. 『균창과 균편의 이야기』. 지식을 만드는 지식.
- 김영애. 1999. 『외대사학』 제10집, 「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pp. 97-101.
- 김재용. 1996.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 김환희. 2004 상반기. 『비평과 전망』 8, 「비교문학적인 시각에서 본 <콩쥐팍쥐>의 기원과 특성」. 새움. pp. 306-307.
- 박규홍. 1981. 『구비문학』 6, 「재생설화의 재생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pp. 71-89.
- 주경철. 2005.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산처럼.
- 장덕순. 2001.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덕순 외. 1992.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 최운식. 1991.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 Anuman Rajadhon. 1988. *Essays on Thai Folklore*. Bangkok:Thai Inter-Religious Commission for Development & Sathirakoses Nagapradipa Foundation.

- Bunyong Khetthet. 1989. *Sathanaphab Satrithai*(태국 여성의 지위). Bangkok: OdionStore.
- Ekkarat Wudomphorn. 2005. *Ruamnithanpheunban*(민담모음집), Bangkok : Phatthanaseuksa.
- Ruth-Inge Heinze. 1982. *Tham Khwan*. Singapore : Singapore University Press.
- S. Phlainoi, 1961. *Nithanthai*(민담), Bangkok: Ruamsan,
- Siraphorn Na Thalang, 2009. *Thrisadikhaticchonwitthaya*(민속학이론),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Siraphorn Na Thalang, 2000. Thai Folklore Drama on Television:Tradidition and Modernity, *Thai Folklore : Insights in to thai Culture*, Sriraporn Nathalang ed.,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Siraporn Titathan Na Thalang. 1997. *Kanwikro Tamnan Sanglok khong Chonchat Thai*(타이족의 천지창조설화비평). Nonthaburi: Sukhothaithammatiraj University Press.
- Suphattra Suphab. 1993. *Sangkhom lae Watthanathamthai*.(태국사회와문화) Bangkok: Thai Watana Panich.
- Suvanna Krienkraipetch. 2000. *Thai Folk Beliefs about Animals and Plants and Attitudes toward Nature*, Thai Folklore : Insights in to thai Culture, Sriraporn Na Thalang ed., Bangkok: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Thawach Poonmothok, 2001. *Nithanpheunban*(민담), Bangkok: Aksornchareonthat.
- Thnakid, 1996. *50 Nithanthai*(민담50편), Bangkok: Suwiriyanan.
- Thanapol(Lamduan) Chadchaidee. 2003. *Fascinating Folktales of Thailand*. Bangkok: D.K.Today.
- Wichian Kesptathum, 2008. *Nithanpheunban*.(민담) Bangkok: P.S.

Phattana.

Saisamorn Cheuytrongkarn. 1986. *The Social Status of Thai Women in the Novels of Dok Maisod and K. Surangkanang(Between P.E. 2475-2493)*. 태국 쫄라롱껀대학교 비교문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Warapatama kammou. 1992. *A Comparative Study of Different Versions of Nang Uddhara*. 태국 치앙마미대학교 란나언어와 문학전공 석사학위청구논문.

khunyingtemsiri.exteen.com/

www.human.cmu.ac.th/home/thai/sompong/res_grad_warathida.doc

(2010. 12. 2 투고; 2010. 12. 31 심사; 2011. 2. 23 게재확정)

<Abstract>

Some Aspects of Thai culture on the folktale “Pla Boo Thong”

Kim Young Aih(HUFS. Thai Dep't)

There are many versions of the thai folktale "Pla Boo Thong" in Thailand, which is a typical type of stepmother story and in many ways resembles Cinderella story. This study, the author took 6 versions, some from books, some from internet.

The main story of those 6 version is consist of the death of mother, stepmother and step sister, the maltreat of the stepmother to the heroine, tiding over the critical moments with the help of the dead mother and others, getting married with the king and happy of the heroine, death of the heroine by the slander of stepmother, posing as a queen of the stepsister, reincarnation of the dead heroine, meeting with the king again, and punishment and the stepmother and stepsister.

The main theme of this narrative is a conflict in the polygamic family and is followed by the pattern of the Cinderella tale such as the distinct contrast of Good and Evil. This tale also teaches teachings of Buddha such as the punitive justice, the promotion of virtue and reproof of vice, and forgiveness. And otherwise it gives the people the courage and hope to overcome fortitude in their life.

Key Words: Pla Boo Thong, Uddhra, thai folktale, thai stepmother tale,
thai fairy tale